

지역중소-해외 기업인 네트워크 구축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29~31일 DJ센터서 430개 기관·업체 참여

유통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려

국내 중소기업인과 재외동포 경제인을 한데 묶는 '제12회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가 29일부터 31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기업전시회는 총 430개의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며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인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기업전시회는 총 17개의 테마관으로 운영되며, 주요 전시관은 ▲미주, 아시아 등의 한상단체로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한상특별관 ▲광산업, 전자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광주시의 특화된 기업을 유치해 운영하는 광주 특별산업관 ▲서울시 우수창업기업 및 유망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한 자리에 모은 서울우수기업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HIT 500' 상품 및 중소기업 지원 유망기업의 우수상품으로 구성된 HIT 500관 ▲기업이나 중앙정부 인증기업의 아이디어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관 ▲호남지역의 농·

특산물을 소개하는 호남권 특산물 상품관 등 주제별로 부스를 구성, 전시 효과를 극대화한다.

전시 외에도 유통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30일에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공전략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비즈니스 서비스전략 세미나'가, 31일에는 기업전시회 참가 중소기업과 대형유통업체 및 수출 에이전트 간 상담을 진행하는 '유통바이어 초청 상담회'가 각각 진행된다. 일반 관람객을 위해 컨벤션센터 광장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갈라쇼'가 개최되며 매일 퓨전음악, 비

"광주은행 지역환원 금융주권 확립 필요"

김태호 의원 韓銀 광주전남본부 국감 앞두고 주장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광주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지역은행으로 환원해 지역 금융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호(경남 김해) 의원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25일)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광주은행의 지역은행 환원을 통해 지역 금융주권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기준 지방은행의 전체 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이 6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이 51.7%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 대출은 34.2%에 불과하다"며 "지방은행의 소재 여부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일차적 창출에도 영향을 주기에 지방은행의 보유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지역에서도 광주은행 행 매각과 관련해 지역민들이 광주은행이 지역에 환원되길 원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한국은행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현안을 연구하는 지역본부인 만큼 이를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은행의 보유 여부는 해당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역할도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은행을 통한 지역의 금융주권 회복은 반드시 관심을 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국은행의 역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3분기 주택 거래량 절반 감소

전국 14만2927가구...2분기 비해 47%에 그쳐

지난 3분기 주택 거래량이 전 분기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량은 총 14만2927가구로, 올해 2분기 거래량인 29만19546가구와 비교하면 15만6619가구나 감소했다. 이는 2분기 거래량의 47.71% 불과한 수준이다.

광주지역 주택의 3분기 거래량은 5153가구로, 전 분기 1만2051가구와 비교하면 42.75%(-6898가구)에 그쳤으며 전남지역의 거래량은 4152가구로, 전 분기 8109가구보다 51.20%(-3967가구)에 불과해 광주·전남지



런웨이에 선 갤럭시 기어 서울패션위크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여의도 IFC몰에서 열린 '패션 웨어러블 디바이스 친화적 노트3 + 기어 패션쇼'에서 런웨이에 오른 모델들이 '갤럭시 노트3', '갤럭시 기어'를 착용한 채, 활동적인 캐주얼룩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환율 하락 지속...장중 한때 연저점 돌파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계속되며 장중 한때 연저점을 경신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2원 오른 달러당 1,06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전일보다 0.2원 오른 달러당 1,056.0원에 개장했지만 이후 곧바로 하락 반전, 지난 1월 15일 기록한 장중 연저점 1,054.5원에 바짝 다가간 뒤 등락을 반복했다.

오후 2시20분께는 연저점이 붕괴, 달러당 1,054.3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곧바로 수직 상승, 몇 분 안돼 달러당 1,062.0원까지 치솟았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외환당국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을 경신하자 구두 개입에 나섰다.

최근 이런 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원화 가치 절상 요인이 동시에 나타났다. /연합뉴스

공기업 빚 줄이려 5년간 공공요금 인상?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천문학적 적자 서민들에 전기" 비난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공공기관 41개사는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자구계획을 세웠고, 정부는 내년도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자구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한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현행

각면제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경차 할인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연간 250억원의 수입이 더 생길 것으로 도공은 보고 있다.

도공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와 10%로 각각 줄이고 4~6급 장애인 할인 대상에서 빼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 전체도 모두 유료화한다. 성남, 천계, 구리, 김포, 시흥 등 5개 영입소가 그 대상이다. 외곽선 유료화시 740억원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 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전은 또 한전산업(29%), LG유플러스(9%), KEPCO E&C(75%), KPS(70%) 등 출자지분과 분사 부지를 매각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린다. 내년까지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를 분양해 1조2천억원을 거둬들이고 함안시설관리권을 1조3천억원에 매각한다. 용산역사개발 사업 좌절로 막대한 빚을 진 한국철도공사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 연동제가 적용 중이다. /연합뉴스

상업용 빌딩 공실률 늘고 수익률 하락

경기침체와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늘고 투자수익률도 하락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 전국의 오피스 빌딩 824동, 매장용 빌딩 2331동 등 상업용 부동산 총 3155동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오피스 빌딩이 0.95%, 매장용 빌딩이 0.85%로 각각 전분기 대비 0.09%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경기 지표 약화와 오피스 빌딩의 공급 과잉,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공실률은 오피스 빌딩이 9.3%, 매장용 빌딩이 9.7%로 전분기보다 각

▲ 코스피지수	▲ 코스닥지수	▲ 금리 (국고채 3년)	▲ 원·달러 환율
2046.69 (+10.94)	531.03 (+5.65)	2.80% (+0.01)	1061.00원 (+5.20)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062)605-1115, 1024, 1021

【신학대학원 신입생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선발하는 학과와 학부과정의 동일계열 출신자만 해당됨.

■ 주요일정
① 원서접수: 2013. 11. 11(월) - 22(금)
② 전형일: 2013. 11. 26(화) 오후 4:00

【각 대학원 신입생 일반전형】

■ 주요일정
① 원서접수: 2013. 12. 2(월) - 10(화)
② 전형일

학과	필기 및 실기교사	면접교사
신학과(Ph.D.)	2013. 12. 13(금) 오전10:00	필기교사 후
목회학과(D.Min.)	-	2013. 12. 13(금) 오전10:00
신학과(Th.M.)	2013. 12. 13(금) 오전10:00	필기교사 후
신학연구학과(M.A.T.)	-	2013. 12. 13(금) 오전10:00
유아교육학과(M.Ed.)	-	2013. 12. 14(토) 오후3:00
음악학과(M.A.)	2013. 12. 14(토) 오후3:00	실기교사 후
신학과(M.Div.)	2013. 12. 13(금) 오전10:00	필기교사 후
교육학과(M.Ed.)	-	2013. 12. 14(토) 오후3:00
상담심리치료학과(M.A.)	-	2013. 12. 14(토) 오후3:00
사회복지학과(M.S.W.)	-	2013. 12. 14(토) 오후3:00
평생교육학과(M.Ed.)	-	2013. 12. 14(토) 오후3:00
한국어교원학과(M.A.)	-	2013. 12. 14(토) 오후3:00

www.kwangshin.ac.kr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배운성사! 결혼성사까지... (백영숙 이사, 유경선 부부장 출연)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초초등학교출업, 전주고등학교출업]

남	초혼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32~68세
판사, 검사, 법리사, 회계사	28~47세	52~62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35~64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33~70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33~4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자영업, 가사 35~63세
		'무술선 여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